

진화되는 도시건축 이미지, Skin의 패션화

The proliferation urban architecture image the becoming skin as a fashion

강소연 / 607Square, 실내건축, 공학박사
by Kang, So-yeun

서문

다르면서 융합할 수 있는 두 장르, 건축과 패션에 대한 관심의 표명과 이에 따른 인식의 전환에 대한 출발점에서 시작한 연구로서 이 연구는 새로운 소통을 찾으려는 의도로 서술되었다.

최근 건축과 패션은 도시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3차원적 조형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근본요소를 공유하고 있으며 시대적 문화현상의 반영물로 다양한 내적 의미의 외적 표현으로 해석되고, 신체는 의복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을, 공간은 새로운 의복으로 신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상반된 가치를 구분하던 건축과 패션이 다양하고 변화로운 방식의 모습으로 협업하며 유기적이고 연계적인 관계로 진화되고 예술과 대중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트렌드 경향으로 미래를 위한 지속적이고 자유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건축의 스킨(표피-Skin)에서도 표현되며 최근에는 패션의 관점에서 건축으로의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패션과 건축은 문화의 물리적 표현의 핵심으로써 패션의 재료(Fabric)는 마치 건물의 스킨과 같이 얇고 투명한 직물의 곡선과 흐름, 겹침과 투명함, 다양성과 풍부함으로 하나의 패션을 연상하고 연계시킨다. 현대건축의 목표는 의복에서의 변화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의복들의 이미지 중첩은 경험, 아이디어, 디자인에서 건물과 의복간의 깊은 공통성을 보여주며 의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예: 접다-Fold)은 옷을 입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그렇듯이 건축 디자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건축과 의복은 물리적, 문화적, 심리적 차원에서 피부를 감싸면서 접촉되고, 보이고, 느껴진다. 따라서 '입는다'라는 점에서 건축과 패션은 닮았다. 건축가와 패션 디자이너는 무엇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외경상 입지에서 신체의 움직임에 실루엣에 적용하는 작업, 건축 설계의 디테일한 레이아웃의 배치는 패션과 건축이 구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

표피, 상업과 예술성의 공존

표피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공간의 내부를 감싸고 보호하는 막이며, 물리적으로는 건축물과 자연의 경계를 짓는 부분이고, 구조적으로는 구조체와 표피로 구분된다.¹⁾ 표피의 의미는 표면적인 의미와 표상 2적인 의미로 나뉜다. 이는 표피가 마치 패션 또는 그림의 캔버스처럼 시각적으로 인식되고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회화적으로도 표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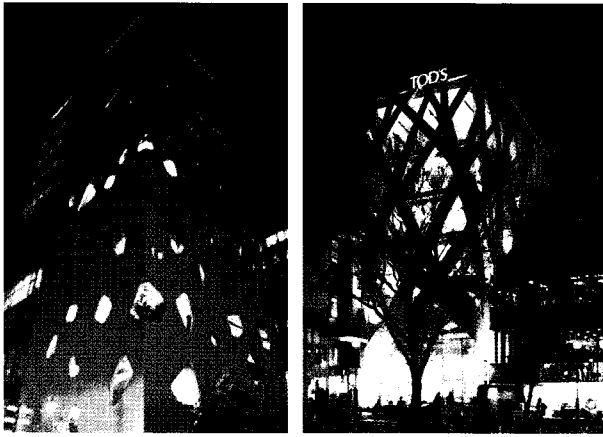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외피(Envelop), 피복(Covering), 클래딩(Cladding), 표면(Surface) 등의 용어와 함께 건축물의 표면을 지칭하는 어휘로 쓰이지만, 본 장에서는 현대 건축공간의 다의적 의미를 포함하는 표피-Skin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체에서 피부는 그 자체에 다양한 층을 포함하고 있어, 하나의 기능으로 작용하는 피부조직이기도 하고 모두를 통칭하여 피부라 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 형태나 기능이 분화되어 피부층이 하나의 기관을 형성하기도 한다. 피부에서의 이러한 특징이 건축의 표층에서도 같은 의미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부는 신체를 감싸며 내부의 기관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표피라는 용어는 건축의 표면으로 신체의 피부처럼 인간이 접하는 가장 일차적인 지점이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표피는 여러 건축가들의 디자인 어휘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전에는 공간과 의미로만 작용하던 표피가 그 자체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며 전체를 나타내던 기표와 기의가 분리되면서 기표 자체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관심의 주변부에 머무르며 의미의 표현수단의 역할을 담당한 재료, 디테일 등이 재조명되면서 표면의 자유로운 형태, 재료의 물성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표피의 형성은 건축의 본질적인 물음에서 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한계를 정의하는 것 또한 어렵지만 현대 건축에서의 두드러진 양상은 표피의 자율성 획득으로 구축되어진 재료의 탁월함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패션 상업공간에서 표현되어지는 외피와 파사드 표현을 포함하는 표피의 연출경향은 한 제품의 진열에서부터 판매상품 및 공간의

1) 이정일, 현대건축의 표피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3, 40호, p.11

2) 표상(Representation)이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측면의 실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형이상학적, 상징적 측면을 건축가의 인식과 재해석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표피의 다양성(Toyo Ito-MIKIMOTO(좌)-TODS(우), 일본)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된 확장된 기능이 제시되고 있으며 표피연출이 장식영역에서 확대되어 복합적인 매체와 기술의 적용으로 상품과 사람, 장소 그리고 디자인 트렌드와 브랜드 이미지를 반영하는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도시 건축의 이미지 _ 표피의 패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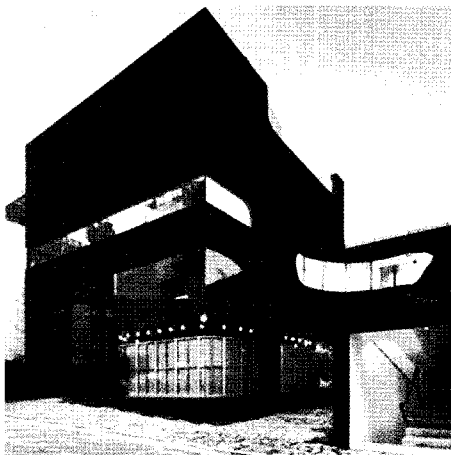
따라서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³⁾의 표피의 표현경향은 시대적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외피와 파사드를 포함하는 장식적 영역에서 확대되어 복합적인 매체와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패션과 건축은 문화의 물리적 표현의 핵심으로 연출되고 이러한 상관성은 패션의 재료(Fabric)가 마치 건물의 표피와 같이 가장 얇고, 투명한 직물의 곡선과 흐름, 겹침과 투명함, 다양성과 풍부함으로 오늘날의 어떤 건축물들은 하나의 패션을 연상하고 연계시킨다.⁴⁾ 또한 표피의 다양성은 공간의 구성적 역량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되어 공간

의 인식을 통한 패션과 건축의 만남이자 공유하는 문화의 접점으로 상관적 관계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최근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는 과거에 비해 표피 연출을 통한 다양한 조형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공간 자체만을 주개념으로 하는 근대건축과는 달리 표피의 표현을 통하여 다변화된 문화 욕구에 충족과 상업공간이 도시환경의 랜드마크적 심벌화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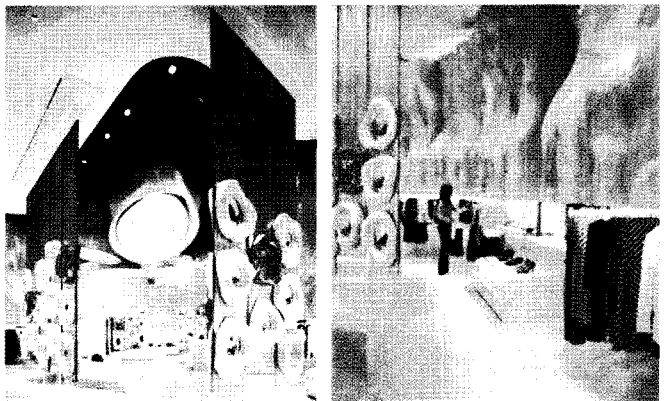
이렇듯 건축이 예술의 전반에 관한 자유 의지의 한 표현방법으로써 존재하며, 관념적 표현의 한계성에 대한 도전으로 접경예술(Art Frontiere)에 대한 수용과 재해석으로부터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반영으로 미술의 오브제로서 패션이 도입되거나 예술적 표현의 장으로서 건축공간의 연출에 활용되고 있다.⁶⁾ 따라서 예술 분야 중 인간의 신체를 감싸는 표피로 존재하는 패션과 건축은 더욱 더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습관과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은 패션과 건축에 더욱 잘 나타나며 변화된 환경과 더불어 그 변화에 적응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평론가 제프리 킵니스(Jeffery Kipnis)는 헤르조그 드 무런(Herzog & de Meuron)의 외피를 화장술(The cunning of Cosmetics)로 명명한다.

*'장식은 보석처럼 구분되는 실체로 몸에 부착되어, 구조와 몸의 완벽성을 강화하는 반면 화장은 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화장은 언제나 표피하고만 관계를 맺는다. 장식이 실체로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반면 화장은 흥조나 음영, 하이라이트, 오로라 혹은 공기처럼 작용한다.'*⁷⁾

표면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화장'은 적절한 묘사로 생각한다. Cuning(교활한 기교)이라는 표현은 외피를 구조체와 구분이 불가능하도록 관계 맺게 하는 헤르조그 드 무런 건축의 본질 역시 효과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⁸⁾



〈그림 2〉 표피의 다양성 (앤 드립미스터 패션빌딩, 조인석 매스스터디스, 한국)



〈그림 3〉 표피의 다양성 (Fornarina, Giorgio Borruo, 미국)

3) Flagship store: '전략적 선두 매장', 브랜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으로 그 브랜드의 각 라인별 상품을 구분해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모범적이고 기준이 될 만한 트렌드를 제시하고 보여주는 대형점을 일컫는다. Eleanor Curtis, 'Fashion Retail', Published in Great Britain in by Willey-Academy, a division of John Willey & Sons Ltd, 2004.,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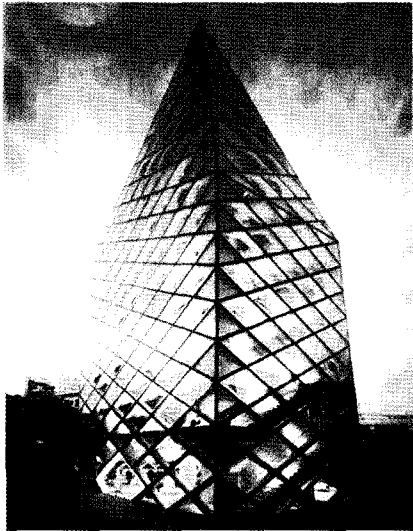
4) H. Castle, 'Fashion + Architecture', Vol. 70, No. 6, 2000 by John Willey & Sons Limited, pp.7~94

5) 강소연, 플래그십 스토어의 브랜드 이미지 특성과 디자인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7, p.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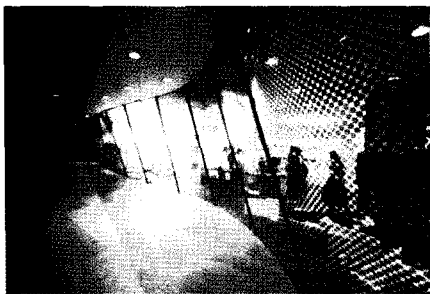
6) 김해정, 현대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논문, 1998, p.19

7) Jeffery Kipnis, 'The Cunning OF Cosmetics (Herzog & de Meuron)' EL. Croquis, No 60/84, 2000, pp.405~411

Women architects and Era of Design Competition



〈그림 4〉 표피의 다양성(Herzog & de Meuron, Prada, 일본)



〈그림 5〉 표피의 다양성(Future Systems-Tako Kawasaki, Comme Des Garçons, 일본)

헤르조그 드 무런은 건축이 패션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비난하면서 건축에서 패션은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적극적 창조물임을 강조하고 건축의 영속성은 오히려 자기시대를 표현할 때 지속된다고 말한다.

‘패션과 음악, 예술은 우리의 분별력을 형상화하는 작업이자 우리시대의 표현이다. 패션이 왜 나쁜가?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은 패션의 화려한 측면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싶어 하는가이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근한 부분이 되어 버린 인공적 피부에 관심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인체를 건물로 비유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건축을 창출하고, 창출된 건축은 도시의 일부가 된다. 옷은 건물처럼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을 이어주는 고리의 일종이다. 반면 패션은 싫어지거나 공적인 부분을 바꾸고 싶을 때 버릴 수 있지만, 건축에서는 그럴 수 없다. 역설적이지만, 시대의 모든 욕망과 취향을 합해 시대정신과 그 시대의 패션을 표현해야만 건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작품에 모든 유행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과 음악, 그리고 특히 예술가와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건축 외적인 곳에서 시대의 감각을 얻는다.’⁸⁾

이러한 주장은 패션의 개념이 유행을 주입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능적인 것임을, 시대에 반영할 때 건축도 일종의 자율적 패션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헤르조그 드 무런의 작업에서 건물의 표면은 그들의 건축적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체는 건물에 비유되고 외피는 신체의 인공적 피부인 의복에 대입되어 외부와 관계 맺는 직접적 연결고리로서 작용한다. 사람들이 의복이라는 인공적 피부를 통해 사적인 내밀함을 공적인 외부와 연결시키는 것처럼 건축은 표면을 매개체로 도시와 만나며 표면은 연계된다고 언급했다.

‘건축과 패션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를 반영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 프랭크 게리(Frank Gehry)

‘건축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건축을 통해 도시에 옷을 입고 있다. 칼빈 클라인에게 배운 건축가는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오는 이벤트를 사색 및 예상하며 거울로 세계를 보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건축가의 작업은 앤디 워홀의 흠어진 공장처럼 무한한 가상 스튜디오로 조직화될 것이다.’

- 벤 반 버클(Ben van Berkel)

지금까지 제시한 패션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들 중 하나로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현대건축에서 표면을 패션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사이의 경계조절과 건축물이 주변 사회에 대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표면을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헤르조그 드 무런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은 패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만의 건축을 창조하며 패션이 그 사람을 사회에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이듯 건축도 표면을 통해 도시와 인접하며 자신을 표현한다. 즉 패션 디자인은 인간의 제2의 스킨으로 인체와 가장 가까운 디자인 대상물이자 사회 문화적 표상이다. 건축에서 표피가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투명화 되고 비물질화 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외피의 투명성은 건축구조의 과학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외부 환경을 실내공간으로 유입시키는 역할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또한 패션 의상에 있어서 속옷이 겉옷화 되고, 내부에 숨겨져 있던 솔기부분들이 외부의 장식적인 요소로 강조되며 의복의 일부가 공간으로 연장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⁹⁾ 패션의 표피화 현상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패션은 인체에서 분리되어 공간디자인으로 연장되고 건축에서 스킨은 경계적 표피에서 분리되어 공간 내부로 극대화되어 표현되어지고 있다. 패션과 건축에 나타난 스킨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은 디자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표현양식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8) 유진상, 헤르조그 드 무런 건축의 외피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3, pp.2~3

9) Jcaque Herzog, Conversation with Jeffery Kipnis, 1997, EL, Croquis, No 60/84, 2000, pp.28~29

10) 심은주 외, 패션과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내,외부 연결매체로서의 스킨개념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6,57호, pp.28~29